

# 技術革新으로 高度經濟成長에 寄與하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金允基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오늘(24日) 우리 科學技術人은 高度經濟成長과 福祉社會建設의 主役으로 獻身하면서 뜻깊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創立 第7周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그동안 直接 또는 間接으로 우리 聯合會 育成發展에 協調해주신 會員 및 特別會員여러분과 行政當局 그리고 關係機關에 우선 깊은 感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科學技術人의 總和와 團結, 科學技術의暢達 및 振興을 위해 發足한 本聯合會는 그동안 꾸준한 發展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聯合會가 全國民의 科學化운동 및 沉國民的 科學技術革新등 國家의 課業遂行에 先鋒이 되게 한 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科學技術人이 決意한 새마을 技術奉仕活動은 好評속에서 지금까지 繼續展開되고 있습니다. 放送 및 新聞을 通한 技術指導와 現地技術指導 등 3段階로 나누어 實施하고 있는 이 事業은 50餘學會에서 53명의 會員이 指導委員으로 參加하고 있습니다.

우리聯合會는 또 이와 併行해서 새마을 技術便覽의 刊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全國民의 科學化운동의 일환으로 發刊을 서두르고 있는 이 새마을 技術便覽도 오는 11月中에는 製本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科學技術用語 制定事業도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으며 部分的으로는 마무리 段階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地方特產物開發技術研究事業과 農家工產品開發技術調查研究事業을 展開하고 있으며 이 모든 事業은 우리나라 經濟 및 社會發展에 크게 寄與하게 될 매우 값진 事業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科學技術人의 宿願인 科學技術센터建設工事が 政府의 支援과 各會員團體 및 企業人의 替助로 順調히 進陟되고 있습니다.

지금 地下1層 地上8層까지 骨造工事を 마쳤으며 年內에 當初計劃대로 地上9層까지 骨造工事와 防水工事を 끝내고 來年에는 内部施設까지 모두 마칠 計劃으로 있습니다.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우리聯合會가 이 모든 事業을 成功裡에 이끌어 나가는 것은 總和를 이룬 우리 科學技術人의 힘에 의한 結晶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聯合會는 이 團結된 힘으로 앞으로는 더욱 高次의이고 廣範圍한 問題解決에 所任을 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는 高度經濟成長을 위한 80年代의 百萬弗 輸出과 1人當 國民所得 1千弗의 目標達成을 為하여 總力を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來日의 健康한 生活, 豐饒한 社會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各自 專門分野別로 最新科學技術에 의한 技術革新이 따르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主張한 바와 같이 한 나라의 科學技術의 水準은 그나라의 國力의 尺度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科學技術人은 高度經濟成長과 福祉國家建設등 民族中興의 課業遂行을 위한 先鋒이 돼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國家의 課業을 達成하기 위해 高度의 重工業化를 指向하고 있으며 그 첫 段階作業에 들어섰습니다.

또 世界的으로 심각한 問題가 되고 있는 食糧增產과 エ너지의 國內 解決策을 模索하기 위해 多角度로 研究檢討하고 있습니다.

이 分野의 우리 科學技術人們이 總動員하여 所期의 目的達成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우리의 能力과 使命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科學枝術人은 지금 어느 때 보나도 國家와 民族을 위해 智와 技를 誇示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聯合會도 앞으로는 어떠한 國家의 課業에 直接 參與, 이를 解決하는 中樞的 役割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記念講演會를 마련한 것도 앞으로 다가올 여러가지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데 있습니다.

많은 高見을 내어 좋은 結實을 얻게되기를 바라며 우리聯合會가 名實共存 科學技術人의 中樞的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繼續 指導연달과 協調 있으시기 바랍니다.